

# 기쁨

마음이 통하는  
VOL.4



## 커버스토리 KT,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보

- PEOPLE | 다운플랜 서비스 이용후기
- 노동계 이슈 01 | 복수노조 시대 1년을 돌아보다
- 노동계 이슈 02 | 은퇴 쇼크 ... 우리는 준비 됐나?
- 현장24시 | KT영동지부 CS컨설팅팀 박선영 조합원

# 기쁨

마음이 통하는  
VOL.4



# 풍요의 계절 가을 노력의 결실을 수확할 때

가뭄과 폭염...  
폭우와 태풍이 차례로 휩쓸고 간 자리에  
어느덧 가을이 당도했습니다.

들녘은 황금빛으로 일렁이고  
산하는 오색빛깔로 출렁입니다.

자연의 분노가 제아무리 거세도  
자연은 결국 풍요로운 결실을 선물합니다.

연이은 재해로 과일과 채소의 수확량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어렵게 키운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부들의 땀방울엔  
희망과 기쁨이 어려 있습니다.

모질고 험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노력의 성과는 반드시 돌아오게 마련이지요.

수확의 계절,  
우리는 어떤 결실을 수확하게 될까요?

농부의 땀방울 앞에 부끄럽지 않은 10월이 될 수 있도록  
그간의 노력이 알찬 열매로 되돌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 Contents Vol. 4

<b>04</b>	KTTU News	<b>22</b>	노동계 이슈1 - 복수노조 시대 1년을 돌아보다
<b>09</b>	고객서비스직 신입 조합원 인터뷰	<b>24</b>	노동계 이슈02 - 은퇴 쇼크 ... 우리는 준비 됐나?
<b>10</b>	조직진단 설문조사	<b>26</b>	현장24시 - KT영동지부 CS컨설팅팀 박선영 조합원
<b>12</b>	KTTU 리서치 - 한국·베트남 수교 20주년,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행사	<b>30</b>	칼럼 - 내 월급봉투 속의 행복
<b>14</b>	COVER STORY - KT,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보	<b>32</b>	길따라멋따라 -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금·토·일 해외여행
<b>18</b>	PEOPLE - 다운플랜 서비스 이용후기	<b>34</b>	북멘토
<b>20</b>	직업의 세계 - 세계박람회에서 활약한 직업의 세계		

발행인 | KT노동조합 위원장 정윤모 편집인 | KT노동조합 정책실장 차원규 발행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KT노동조합 031-727-2835 발행일 | 2012년 10월 8일(격월간)  
제작 및 디자인 | KT문화재단 02-3414-2053 인쇄 | 삼립인쇄 02-469-7111

# 2012년 단체교섭, 요구(안) 확정

임금인상과 정년연장, 반드시 쟁취!



KT노동조합은 10월 4일(목) 오전 11시 '제5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2012년 단체교섭 6대 요구(안)과 교섭위원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운모 위원장은 "현장을 순회하며 많은 고민을 했지만, 올해만큼은 간결하고도 확실한 요구안으로 2만 5천 조합원의 뜻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무엇보다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임금인상, 정년연장'을 반드시 쟁취해 조합원들의 오랜 노고를 위로할 것"이라며 "특히 고과인상분에 의한 인상이 아닌, 조합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피부에 와 닿는 임금인상을 쟁취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계속해서 오후 2시부터 산하조직대표자(전국지방본부위원장) 회의를 통해 2012 단체교섭 요구(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2012년 단체교섭 1차 본교섭은 오는 10월 9일(화) 노사 양측 상견례로 시작한다.

### 2012 단체교섭 6대 요구(안)

<임금에 관한사항>

1. **기준연봉 월정액 6.2% 인상**
  - 고과인상분 3.2% 제외
  - 2012년 예상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참작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사항>

2. **정년연장 (58세 → 60세)**
3. **매년 자기계발비 지급 (상, 하반기 각 50만원)**
4.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923억**
  - 단체협약 제90조 관련 829억
  - 별도출연 합의서 이행 (단체보험 18억, 기념품비 76억)
5. **자가차량 현실적 보상**

<기타사항>

6. **OTV, OTS 유료콘텐츠 무료지원**

# KT노동조합, 중앙상집 전국 출동!

올바른 GB정책 재정립을 위한 현장 점검



부의 지속적인 점검을 약속했고, 추후 불미스러운 일 발생 시 지방본부나 노동조합 홈페이지 '열린 위원장실'을 통해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GB Basic Rule 준수사항
- 네트워크 및 본/사/지원부서 등 영업지원 부서 직원이 모집한 가입자를 편법으로 해당 기관으로 유치하는 행위 절대금지 (ex 회식비 등 금전적 보상 등)
  - 강제할당/줄세우기 및 실적관리, 실적거래 및 실적 몰아주기 금지
  - 위약금 회사 지원, 판매실적 인사사고과 반영 등 허위사실 유포 금지
  - 노동조합 중앙본부에서 합의한 GB정책 외 별도 프로모션 금지



KT노동조합은 9월 24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열고, 지난 13일(목)부터 21일 (금)까지 실시한 중앙상집 전국현장출동 점검사항을 공유하고 정운모 위원장에게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전국 지방본부에 파견된 중앙상집들은 책임자면담과 조합원간담회 등을 통해 GB 정책이 애초 자발적 의도와 달리 목표치에 대한 뜬 소문이 생긴 것에 대해 적극 현장의 오해를 풀고, 우려되는 부분은 즉시 바로 잡은 뒤, "대치 된 부서 외 실적이전이나 위약금지원 등 변칙운동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누차 강조했다.

KT노동조합과 회사는 당초 CIC별 판매정책이 상이하여 부문간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고객에 대한 정책을 일원화하고자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 GB정책을 추진할 바 있다.

중앙상집들은 각 지방본부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중앙본

# KT · SKT · LG유플러스 3사 노동조합, 통신노동조합협의회 결성

KT · SKT · LG유플러스 노동조합...이제 함께 뚫다!



왼쪽부터 SKT노동조합 김봉호 위원장,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 LG유플러스 노동조합 신건택 위원장

KT, SKT, LG유플러스 3사 노동조합은 9월 11일(화) 오후 2시 KT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통신노동조합협의회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통신노동조합협의회(이하 통신노동조합협의회) 창립식에는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 SKT노동조합 김봉호 위원장, LG유플러스노동조합 신건택 위원장을 비롯한 각 노동조합별 조합간부들은 물론, 자문위원과 기자단 등 총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행사는 창립경과 보고와 정관의결을 거쳐 공동의장 선임, 집행처장 및 정책자문위원 위촉, 사업계획보고 및 추진, 공동선언문 채택순으로 진행됐다.

통신노동조합협의회는 국내 대표 통신3사 노동조합이 통신노동자 권익향상과 방송·정보·통신정책 선진화 및 공익성 강화 선도, 공정경쟁환경 조성, 통신주권 회복을 통한 세계최고 정보통신 국가실현을 위해 뚫친 것이다.

이날 통신노동조합협의회는 3인의 공동의장(각 단사 위원장)체제를 구축하고, 대표의장에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을, 집행처장에 KT노동조합 최장복 조직실장을 임명했다.

대표의장을 맡은 정윤모 위원장은 “급변하는 통신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함께 공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했고 3사 노동조합의 연대와 공동의식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면서, “지난 1월부터 협의회 방향과 실천모델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한 끝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드디어 이렇게 협의회의 첫 시작을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방송통신정책을 위한 공동포럼을 개최하고, 과잉규제 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 이를 통해 향후 통신노동자의 권익향상은 물론, 대한민국의 ICT 산업발전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노동조합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은 첫째, ▲IT분야 정책선진화 및 공익성 강화 선도사업이다. 이를 위해 IT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반기 1회 공동연구·과제수행, 연1회 방송통신정책 공동포럼을 개최한다.

둘째는 ▲통신노동자 권익향상이다. 이는 회원 노동조합간 단결력강화 및 친목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회원조합 연대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대국민 공익캠페인 및 대외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정책감시 및 과잉규제 감시단도 운영한다.

세 번째는 ▲사회공헌활동 및 글로벌 노사문화 교류로 회원노동조합이 재원을 출연하여 저소득층자녀 장학사업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통신네트워크 강화 및 벤치마킹을 시행하여 해외 통신노동조합과의 연대강화 및 한국 ICT산업 홍보에 앞장설 계획이다.

KT trade union

6  
7

## KT노동조합 단체교섭 전담팀 가동

1 2012 조합원 승리 위해 교섭위원의 역량 결집에 총력!

KT노동조합은 9월 25일(화)부터 27일(목)까지 단체교섭 전담팀을 구성하여, 2박3일 일정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했다.

단체교섭을 앞두고 최종교육에 참가한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은 최근 몇 년간의 단체교섭 결과와 KT 및 현 국내 통신시장 상황, 기업별 교섭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며 최적의 논리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집중 토의시간을 가졌다.

차완규 정책실장은 열린 토의를 시작하며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을 토대로 11대 집행부 첫 단체교섭 최우선 목표는 임금인상과 정년연장”이라고 누차 강조하고, “이와 함께 현장의 다양한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자”고 독려했다.



## 정윤모 위원장, 전남·부산지방본부 현장순회

1 조직개편 취지 설명하고, 12일 막내린 여수엑스포전담팀 격려

정윤모 위원장은 지난 8월 14일(화)부터 16일(목)까지 전남지방본부와 부산지방본부를 방문해 현장조합원들을 격려했다.

먼저, 14일 전남지방본부 관내 순천지부, 순천NSC지부, 광양지부, 여수지부, 고흥지부 등을 찾았다. 정 위원장은 전남지방본부 조합간부 및 조합원들을 만나 조직개편에 따른 조합입장과 취지를 적극 설명했다. 이어 순천권 지부장 및 순천지부 내 여수엑스포 전담팀 현장조합원들과 저녁만찬을 함께하며 현장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국내외의 800만 관객이 방문한 2012 여수엑스포행사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준 전담팀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며 “93일간의 대장경 경험을 토대로 KT의 통신기술 및 고객센터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정윤모 위원장은 16일에는 부산지방본부 구포지부, 북부산지부 등을 찾아 각 사무실을 돌며 무더위에 지친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조합간부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조직개편의 배경과 방향을 다시 한 번 설명하며 “취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현장순회하다 보니, 조직정비를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 노력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편의 큰 방향은 ▲현장중심 통합으로 기능중복 최소화 ▲수평이동을 통한 업무혼란방지 ▲지역본부 및 지사역할 강화 등”이라며 “현장혼란을 최소화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 2012년 하반기 일반직 및 고객센터직 신입사원특강 실시

1 8월 21일과 9월 4일, 신입사원 대상으로 노동조합 역사, KT복지제도 소개

KT노동조합은 8월 21일(화) 원주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200여명의 2012년 하반기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신입사원 특강’을 실시했다. 또한 9월 4일(화)에는 KT대전연수원에서 320명의 2012년 고객센터직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노동조합 신입사원 특강은 KT단체협약 제37조 에 의거 신입사원교육 시 2시간을 할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조합 역사 동영상 시청 ▲노동조합 역할 및 조직 소개 ▲KT복지제도 설명 ▲다운플랜 상조지원서비스 안 내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강에 나선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은 조합원이 된 고객센터직 신입사원들을 열렬히 환영하며 “앞으로 진행될 2012년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 11대 집행부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노동조합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차완규 정책실장은 “입사와 동시에 끊임없이 고용 불안에 직면하게 되는 게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이지만, 노동조합이라는 울타리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기에 지금의 고용환경과 복지수준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조합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호섭 사업지원실장은 “KT만큼 복지 제도를 섬세하게 갖춘 기업도 드물 것”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도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등 회사와의 적극적 교섭을 통해 복지제도수준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에 강단에 선 정윤모 위원장은 “KT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 뒤 “패기 넘치는 모습으로 현장에서 만나자”고 독려했다.



### 회계연도 2012년 상반기 회계감사 총평

정윤모 위원장 “조합비, 기본 원칙 준수하며 투명하게 집행할 것”  
 KT노동조합 회계감사위원회(대표위원 임태복 외 6인)는 2012년 8월 27일(월)부터 8월 31(금)까지 '2012 회계연도 상반기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31일(금) 오전 9시 총평 및 회계보고서를 발표했다. 임태복 대표위원은 총평을 통해 “수감기간 동안 정윤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중앙상집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11대 집행부 첫 회계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출결의서, 증빙서, 각종 대장, 통장 등 수감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해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일주일 동안 상반기 예산 집행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원만하게 잘 집행되었다”고 평가하며, “환수조치 및 행정지도 건에 대해서는 미비하지만 조합비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정윤모 위원장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1주일 동안 철저히 수감해 주신 회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집행부 첫 수감이라 미비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회계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조합비 운영에 있어 항상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집행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 노사공동 퇴직사우 홈커밍데이 초청행사 개최

정윤모 위원장 “선배동지들의 피땀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KT노동조합과 회사는 8월 30일(목) 오후 2시 분당사옥에서 수도권 퇴직사우 200여 명을 초청해 '퇴직사우 Home Coming Day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퇴직 임직원의 KT로열티 제고와 경영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영성과 및 비전제시를 통해 KT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또한 노사공동 뜻 깊은 행사추진으로 퇴직 사우와의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정윤모 위원장 및 서유열 사장 환영사, 이광세 동우회장 감사 등에 이어 기념품 전달, 경영성과 및 비전 동영상상영, 주요 경영이슈 소개, 초청강연, 기념촬영, 만찬순으로 이어졌다. 정윤모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KT동우회 이광세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님들의 통신시장 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의식과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역사적 책임감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KT와 KT노동조합은 존재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배님들이 이룩한 건강한 노동과 맘의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저와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주·전라·충남지역 태풍 피해복구 현황

조합간부 현장점검 강화...통신시설 97% 가복구, 대내고장 84.4% 복구  
 KT노동조합은 9월 9일(일) 19시 기준,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 현황을 취합하여 공유했다. 지난 8월말 한반도를 덮친 태풍 볼라벤은 제주를 시작으로 전라남북도, 충남지역을 강타해, 많은 피해를 남겼다. 이에 조합간부들은 해당 지역을 직접 순회하며 점검하고 회사와 협의하여 긴급복구 상황실을 운영, 안전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앞장서 왔다.  
 노사는 먼저, 선로시설복구를 위해 총 638명(직영 321명, 협력사 317명)을 투입했다. 이어, A/S 전문인력 183명을 긴급투입했으며, UTP 케이블 575km, 광옥외선 216km, 모뎀/STB 등 단말 14.1만대를 지원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9월 9일 기준, 피해 통신시설 97%가 가복구되었고, 본복구는 54%에 이른다. 항목별로는 피해를 입은 케이블 1,638 km 중 96%가 가복구되었고, 전주 17,634본 중 98%가 가복구 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라/제주지역 케이블 1,196km중 94%가, 전주지역 12,623 본 중 98%가 가복구되었다. 또한, 제주/전라/충청지역 대내고장 수리현황은 84.4% 복구로 집계되었다.  
 한편, 정윤모 위원장은 태풍피해를 입은 40여 개 지부를 격려했으며,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태풍 피해복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장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고객서비스직 신입 조합원 인터뷰

지난 9월 4일, KT노동조합은 KT대전연수원에서 320명의 2012년 고객서비스직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KT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패기 있게 현장을 누빌 신입사원 대표 2인을 만나보았다.

### 그 동안의 마음 고생, KT입사로 보상받았습니다.



이동규 신입 조합원

이동규 신입 조합원은 KT 협력사에서 오래 근무했다. 덕분에 늘 KT 유니폼을 입고 일했지만 KT와 여러모로 다른 환경 탓에 그다지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평소 친화력이 뛰어난 덕분에 고객과 만나는 최전선에서 개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

고, 또 그 방면에서 인정을 받을 자신이 있었다.  
 “원래 사람 만나는 것을 참 좋아해요. 상대방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함께 희로애락을 잘 나누는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고객서비스직군에 지원해 보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늘 KT에 정직원으로 입사하는 것이 바람이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제 나이가 올해 서른 아홉 살입니다. 나이가 적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올해가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따라서 협력사에 다니며 남 몰래 시험 준비를 했다. 한 집안의 가장이라 당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편하게 시험 공부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일하라, 시험 준비하라 마음 고생이 심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혹시나 했는데 합격 연락을 받았던 날. 그 동안의 심적 부담이 모두 날아가 버렸다고.  
 “협력사에서 일할 때에도 많은 고객 감동 사례로 칭찬을 받았는데, 면접관들에게 그 부분이 어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격증 공부도 꾸준히 해 온만큼, 최일선에서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제 가능성을 믿고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김태훈 신입 조합원

김태훈 신입 조합원은 이번 고객서비스직에 입사하기 전, KT의 위탁 대리점을 맡아 운영했었다. 그러나 2011년, 와이브로 상품이 점점 없어지면서 큰 타격을 입고 대리점이 문을 닫게 됐고, 김태훈 조합원은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됐다. 실의에 빠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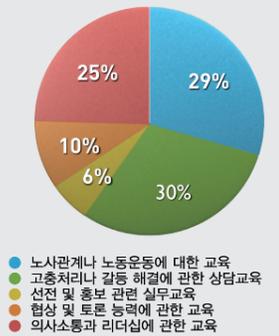
재기를 고민하던 중, 한 지인이 KT의 고객서비스직에 지원해 보라며 추천을 해주었다.  
 “무엇보다 제 가능성을 믿고 뽑아주셔서 그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고 싶습니다. 황당하게 들리실지도 모르지만, 우선 제 목표는 고객서비스직 최고 연봉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호기심과 열정이 많은 김태훈 조합원의 포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회가 닿는다면 노동조합의 간부로 일해보고 싶다는 것이 그의 또 다른 목표다. “이번 교육을 통해 노동조합이 여러 가지 노동여건과 복지를 위해 아주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써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노동조합에 대해 막연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러 간부님들과 대화도 나누고 교육도 받다 보니,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매력 을 알겠더군요.” 나중에 여건이 된다면, 비 정규직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한 노동운동에 투신해보고 싶다는 김태훈 조합원. 그의 포부와 목표가 꼭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 KT노동조합 조직진단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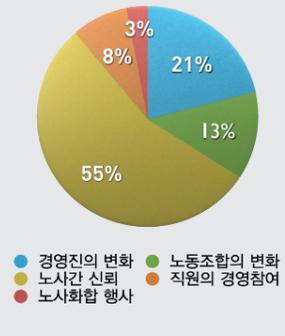
조직진단은 조직의 현재 상태를 분석 및 평가하여 파악된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조사하는 문제 해결 활동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과정이다. 즉, 조직진단은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조직의 지속적인 변화 역량을 강화시켜 조직을 보다 효율적,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조직진단을 통해 KT노동조합의 조직문화, 운영방식, 조직구조, 구성원의 역할, 의사소통 방식 등을 파악하고 평가해 문제의 개선점과 발전 방향을 찾아내고자 했다. 본 설문조사의 조사대상은 KT노동조합의 조합 간부와 조합원이며, 총 1700여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7월 한달 간 진행되었으며,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다중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조합원이 인식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생각, 노사관계, 노조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 직무 만족 및 몰입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여 노동조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주요 설문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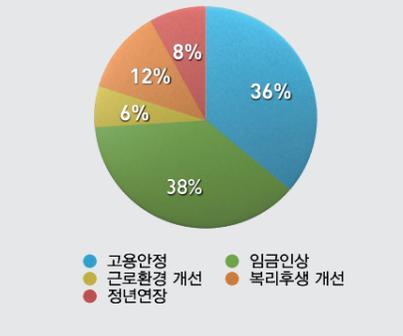
노동조합 간부에게 필요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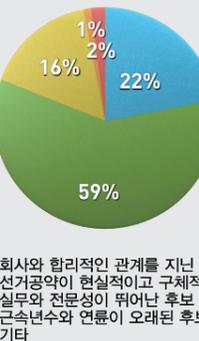
노사관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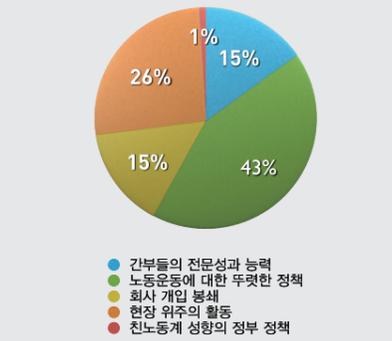
단체교섭에서 가장 중요하게 쟁취해야 할 사항



지향하는 대표자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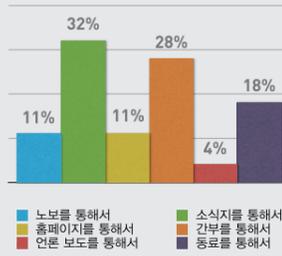
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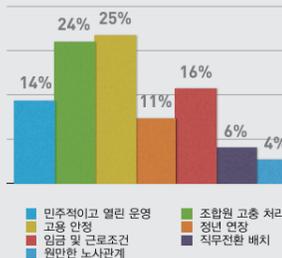
## KT trade union

10  
11

노동조합의 소식을 알게 되는 경로



노동조합의 중점 사안



중앙본부 운영에 관한 의견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현재 중앙본부의 상근 인력은 적정하다	2%	9%	46%	31%	11%
강한 노동조합을 위해 중앙본부로의 역할 집중은 꼭 필요하다	0%	4%	13%	44%	39%
지방본부는 올바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0%	6%	24%	41%	29%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부의 통폐합이 필요하다	19%	20%	31%	20%	9%
중앙본부의 상근 인력은 전문성이 충분하다	0%	11%	41%	37%	11%

노동조합 탈퇴 의사

	그렇다	아니다
조합간부	13%	87%
조합원	23%	76%

노동조합 참여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노동조합에 애착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1%	9%	30%	38%	21%
정책에 불만을 가질 때가 있다	5%	24%	41%	28%	3%
집회나 교육에 적극 동참할 의사가 있다	3%	11%	45%	24%	18%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에 적극 따를 용의가 있다	1%	4%	31%	44%	20%
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한다	15%	26%	25%	19%	13%
노동조합에서 나오는 소식지를 읽는다	6%	9%	25%	43%	18%
노동조합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3%	16%	38%	33%	11%

조직내의 갈등 요소에 대한 의견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안 된다	23%	41%	23%	10%	3%
부정적인 언론보도는 특정 불만세력 때문이다	8%	30%	25%	31%	6%
대의원 간의 소통이 잘 안 된다	21%	40%	33%	5%	1%
노동조합은 회사와 갈등이 심하다	38%	41%	19%	1%	1%

## 진·단·결·과

조사 결과, 조합간부들은 노사관계나 고충 처리에 관한 상담 기법 등 실무기법에 대한 교육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간부들의 역량 강화 의지가 그만큼 높아진 것을 반영하는 결과다. 또한 대다수의 간부와 조합원들은 '유니온숍' 제도가 없어서 노동조합 탈퇴가 자유로워져도 노동조합을 탈퇴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노동조합 가입이 근로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교섭의 중점 쟁취 사안을 묻는 질문에는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을 선택한 조합원이 가장 많았다. 이는 시장 경쟁 악화로 기업경영의 위축, 인건비 부담에 따른 구조조정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불안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이 같은 열망에 부응하는 자세를 확고히 함으로써, 노동운동 주체인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 · 베트남 수교 20주년 기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행사

UCC, KT 9개 지부와 하노이사무소 연결 50가족 만남성사

KT노사를 비롯한 UCC회원사, 글로벌봉사단이 한국 · 베트남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다문화가정 화상상봉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고향땅을 찾기가 쉽지 않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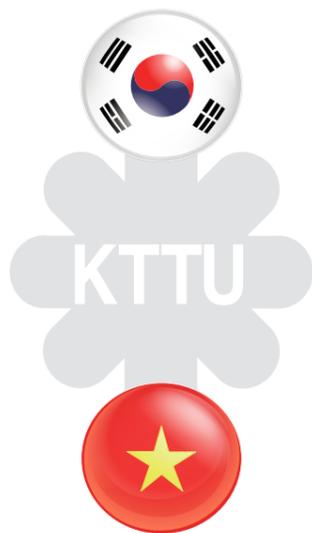


지난 9월 2일부터 10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국내 KT 9개지부에서는 결혼이주여성과 50가족이 초청된 가슴 뭉클한 화상 상봉행사가 이루어졌다. 이번 화상면회는 여성가족부의 협조로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사전심사로 선정된 다문화가족이 베트남 KT하노이사무소와 국내 KT강남, 서초, 서부, 고양, 부산, 구미, 충남, 제주, 창원 등 9개 지부를 하루 5~9가족, 약 30분씩 연결해 진행됐다.

KT,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T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경기도시공사, 장애인고용공단 노사 등 5개 UCC 회원사는 올해 초부터 준비해 온 행사를 KT의 기술을 활용해 이번에 실행으로 옮기면서 다문화가족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했다.

UCC(Union Corporate Committee)는 최근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실천협약식을 맺으면서 좀 더 사회 참여적이고 사회 선도적 공헌활동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도 이 같은 취지에서 기획된 것이다.

특히 화상면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족식을 갖고 하노이 현지로 파견됐던 글로벌봉사단은 이 기간 동안 한국의 딸과 사위, 손주들을 만나기 위해 하노이를 방문한 현지 가족들이 농촌 출신



KT trade union  
12  
13

임을 감안해, 하노이 시내 여행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사가 주축이 된 간단한 의료봉사도 병행했다. 또 이들 봉사단에는 UCC가 지원해온 YOUTH 장학생 10명이 참여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해외 봉사 경험의 기회도 함께 가졌다.

발족식에 앞서 UCC글로벌봉사단 단장을 맡은 KT노동조합 최장복 조직실장은 “한국과 베트남 수교 20주년을 맞아 올해 초부터 계획했던 다문화가정 화상면회를 직접 실행에 옮기게 돼 뜻깊다”며, “UCC 5개 회원사가 합심해 오랜 준비기간을 거친 만큼, 한국과 베트남 다문화가정에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일에는 강남지방본부 5층에 마련된 화상 면회 현장에 KT 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을 비롯, 한창성 강남지방본부위원장 및 조합 간부들과 회사측 권사일 경영지원실장 이하 임원들이 방문했다. 이들은 현장 봉사활동 담당자를 격려하고 베트남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과 직접 화상상봉 시연회를 통해 진행경과 보고를 받는 한편, 다문화가족들의 화상상봉 모습도 함께 지켜봤다.

노사 임원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는 다문화 가족 부티단리씨 가족 4명, 부티후엔씨 가족 3명과 홍숙자 의왕다문화센터 사무국장, 김용상 적십자사 경기지사 총무팀장 등 외빈을 함께 모시고 UCC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봉사활동에 대한 소개와 하노이 현지 가족들의 영상편지 시청, 기념품 전달 등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부티후엔씨는 스크린에 친정 식구들이 나오자 눈물을 쏟아내 주위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부티후엔씨는 4년 전 한국으로 시집온 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한 번도 친정을 찾지 못했다며 멀리 있는 고향 가족들의 안부를 묻고 또 물었다. 가족 역시 부티후엔씨를 쏙 빼닮은 어린 딸을 칭찬하며, 스크린 속의 고사리 손을 직접 만져보지 못해 안타까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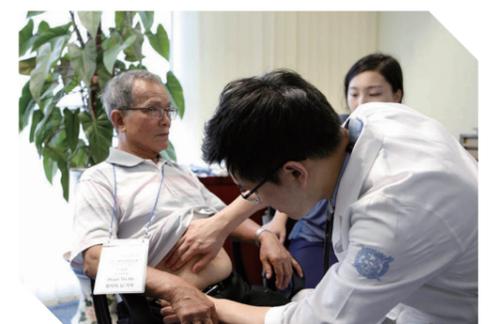
제주의 김선미(베트남명. 팜뚜이레)씨 또한 “몇 년 동안 부모님을 뵙지 못했는데 생생한 화상으로 베트남 가족들에게 남편과 아이들을 인사시키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부모님께서도 한국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고, 관광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 이 같은 기회를 제공해 준 UCC에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날 정윤모 위원장은 “다문화가정 역시 KT의 소중한 고객이기 때문에 이번 행사가 더욱 의미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사공동, 기업 간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소외계층까지 배려하는 따뜻한 KT노사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이 현지 가족들을 검진하는 등 회원사별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수 있어 연대의 힘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KT노동조합과 베트남 우편통신노동조합은 지난 6월 한국 · 베트남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최대 통신사 간 기술교류와 베트남 다문

화가정 지원 등 폭넓은 협력관계를 구축한 바 있다.

KT는 앞으로 다문화가족들의 화상상봉행사를 일회성 보여주기가 아닌 정례화한 행사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베트남과 하노이의 혈육의 정을 이어주는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이 특별한 민간외교사절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 KT,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보

## 미디어 · 위성 · 부동산 별도법인으로 전문성 강화

지난 8월 KT는 이동통신과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TV(IPTV), 집전화 등 유·무선 통신조직을 통합하고 미디어콘텐츠와 부동산, 위성사업은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전사 인력과 자산을 고객중심 경영과 영업력 강화를 위해 통합하고, 미래 성장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설법인 3개를 설립 추진한다는 것이다.

### KT의 부동산사업 잠재력

- 전국 전화국 · 건설지원센터 부지 등 풍부한 부동산 - 부동산 장부가액 6조 4000억원(2009년)
- 유무선망 사업 · U시티 개발사업과의 시너지 가능

- 유후부지 임대수익 위주에서
- 적극적인 부동산 개발로 전략 선회

### 부동산 개발 전문 별도법인 설립

###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화

KT는 휴대전화 등 무선 서비스 상품을 담당하던 '개인고객부문'과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 서비스 상품을 관리하던 '홈고객부문'을 통합한 뒤 기능을 재조정해 'T&C(텔레콤&컨버전스) 부문'과 '커스토머부문'으로 재편했다. 이처럼 T&C부문과 커스토머부문으로 나눈 것은 유·무선 영업조직과 현장지원체계를 통합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단일화된 채널을 통해 유·무선 상품은 물론, 솔루션 상품 등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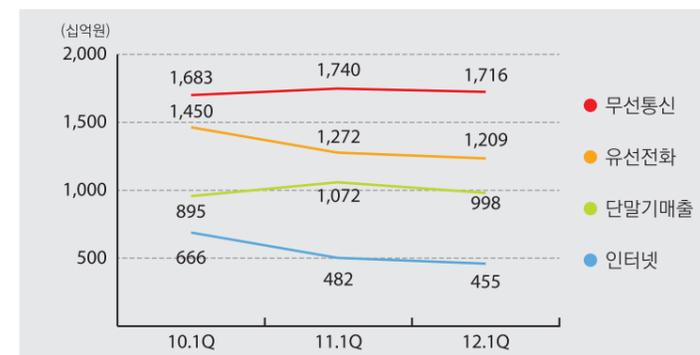
그리고 미디어콘텐츠 전문회사를 설립해 그동안 KT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네트워크 인프라 경쟁력을 토대로 한 글로벌 미디어콘텐츠기업으로의 도약이 보다 가속화되었다. 또한 새 수익창출의 방안으로 위성 전문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지난 2010년 12월 발사에 성공한 '올레1호'를 포함해 무궁화위성5호, 콘도셋(12기) 위성 등을 소유한 KT는 위성전문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전세계적으로 방송이나 통신이 위성을 쓰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전담하는 위성 전문 회사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 전문 사업부문이다.

### KT 최근 3년, 주요 사업 매출 실적



(자료 : KT 2012 1분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각년도 1분기 사업보고서)

KT가 새롭게 설립하는 부동산 전문회사는 전국 각지의 KT지사(옛 전화국) 건물의 임대 사업 등을 담당한다. 부동산 자산 활용을 위한 가치혁신 CFT의 신설과 관련 전문회사 설립은 대형 통신장비로 가득 찼던 과거 전화국의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해 수익창출을 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과제였다. 특히 부동산 사업의 진출은 자산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부동산 사업 진출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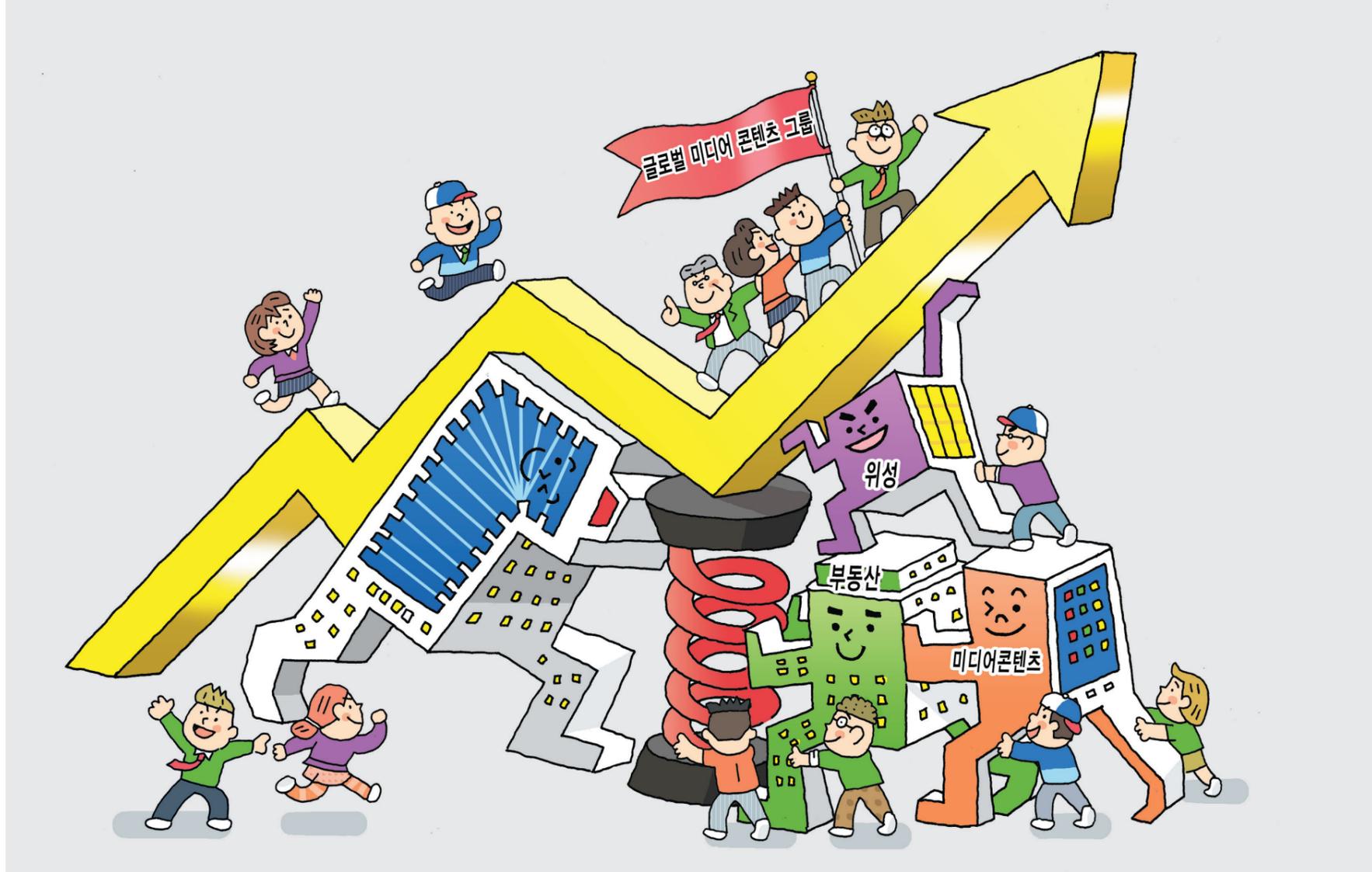
부동산 사업 분야의 경우 KT의 기존 통신 서비스와는 거리가 먼 듯 보이지만 사실 기존의 KT가 가진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와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부문이다. 이미 KT는 올해 초부터 창업자에게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시작하는 등 부동산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40세 이상 시니어 창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올레 서비스드 오피스(olleh serviced office)는 기존 업무 공간 외에 1인~20인 규모의 사무실 77실을 새롭게 열어 시니어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됐다. 특히 창업자에게 장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스마트워킹 환경에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자유롭게 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스마트 오피스' 서비스 역시 제공하고 있다. 수도권, 목동, 명동, 성남에 있는 KT의 스마트 오피스 전용 업무공간을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합리적인 비용에 사물함과 우편함을 제공해주고 회의실 및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스마트워킹 시대에 어울리는 신개념 사무실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기존의 KT가 보유한 부동산과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한 임대사업은 KT만이 할 수 있는 신사업이다. 과거 KT가 유선전

화 사업을 위해 전국에 보유한 건물 등 많은 부동산은 현재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그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과거에는 통신 사업에 대규모 공간과 인력이 필수적이었지만 현재는 기술발전이 따라 소형화, 자동화함에 따라 유휴 부동산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기준 5조5730억원(공시지가)의 토지와 2조3210억원(장부가)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당부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동산 전문회사 설립과 KT의 유휴 부동산 자산의 활용 계획은 KT의 새로운 수익원 개발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 KT 실적 중에서 부동산 부문 매출 이익은 5000억원 이상을 기록해 유선전화, 무선전화 부문을 넘어섰다. 그리고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분양 및 임대 2160억원, 매각 2958억원을 차지했으며 향후 2015년까지 연간 8천5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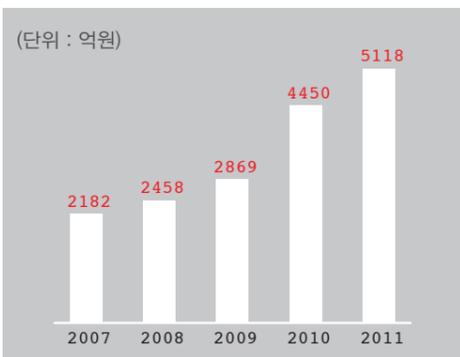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회**

부동산 전문회사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전통 통신부문의 리스크를 줄여 효율성이 향상되고 비통신부문의 경쟁력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거 상품에 따라 분류했던 조직을 업무별로 나눠 전문성과 시너지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그동안 KT는 2009년 KTF와 물리적인 통합을 이룬 이후 꾸준히 융합화 과정을 거쳤다. 그런 점에서 지난 8월 조직개편은 그 완성으로 인식된다. 통합 KT가 출범하고도 대내외적으로 유선과 무선이라는 전통적인 구분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 점이 있었지만 금번 조직개편은 이런 측면에서 '제2의 통합'으로 볼 수 있다. 유·무선 결합 상품 개발 등으로 영업과 마케팅에서 나타난 시너지 효과를 넘어 더 진화한 융합 비즈니스 개발에 한 발짝 다가갔다.

또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미디어콘텐츠와 위성, 부동산 등 3개 부문이 기존의 규모가 큰 통신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던 것을 책임경영에 기반한 별도의 전문기업으로 분리, 운영함으로써 해당사업을 보다 전문화하고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KT내 관련 분야별 전문 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재배치하고, 비통신 성장사업들이 대내외적으로 새롭게 평가받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적극적인 변화를 주도해, 기존 통신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그룹으로 도약하는 KT를 기대해본다.

KT 최근 5년, 부동산 매출 추이



**맥도날드의 부동산 사업 진출 성공 사례**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 맥도날드의 경우 그 성공 비결로 철저한 매뉴얼화에 따른 품질과 서비스의 균일화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실 오늘날 맥도날드의 글로벌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선진 파이낸싱을 이용한 프랜차이즈 부동산 임대업이었다. 과거 패스트푸드 사업의 특성상 수익률이 점점 감소하고 재정난으로 고민하던 맥도날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로 파이낸싱을 이용한 프랜차이즈 부동산임대 사업을 찾았다.

맥도날드는 적은 비용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프랜차이즈 희망자들에게 장기 임대해 줘 가맹점 희망자 역시 적은 비용으로 창업하게 했다. 대신 조건은 판매액 1%의 임대료였다. 이 같은 부동산사업으로 맥도날드는 만성적 재정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가맹점으로부터의 임대료 수익은 안정적 수입원이 되었다. 또한 가맹점으로 인해 주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가치도 함께 높아졌다. 이처럼 부동산 임대사업 실시 후 맥도날드는 더욱 가파른 성장을 거듭했다.

맥도날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위해 다시 재투자했다. 미국 전역에 브랜드 이미지를 통일하기 위한 대대적 광고전략을 펼친 것이다. 그 마케팅비용으로 판매액의 1%를 지불했지만 이는 사실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전액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맥도날드의 윈윈(win-win) 부동산 사업은 맥도날드가 미국을 넘어 세계적인 브랜드와 기업이 되는데 성공적인 발판이 되었다.

외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방림(옛 방림방적)을 비롯해 KG케미칼(옛 경기화학공업), 새한 충남방적 등이 부동산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규업종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서울 영등포의 대표적 기업이었던 방림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자본금을 확보하였다. 특수비료 화학업체 KG케미칼도 약 750억원대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이를 친환경 정밀화학사업 등 새로운 미래형사업에 투자하였다.



KT대구고객본부 구미지부 특별기동팀 김유배 조합원

KT노동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상조브랜드 다운플랜이 출발 2년여를 지나며 조합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이어오고 있다. 얼마 전 이 서비스를 이용한 구미지부 특별기동팀의 김유배 조합원 또한 다운플랜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진행에 고마움을 전했다. 거품 없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다운플랜 상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그에게서 들어봤다.

## “전화 한 통화에 일사천리! 큰 시름 덜었습니다”

“집안 어른의 상을 치르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 사실 많이 당황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하는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막상 큰일이 닥치니 장례 절차가 고민될 수밖에 없더라고 김유배 조합원은 털어놨다. 하지만 미리 가입해 두었던 다운플랜으로의 전화 한 통 이후 모든 절차는 순조로웠다.

“다운플랜에 가입했던 일이 생각나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전문 장례지도사사가 연락을 주시더군요.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와 도우미 직원들이 오셔서 모든 준비를 해주시고 따로 이것저것 당부하지 않아도 일사천리로 진행해 주신 덕에 경황이 없는 중에도 한 시름 놓았습니다.”

직원들의 친절함과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는 등 김유배 조합원이 이번 다운플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보다도 따로 웃돈 요구가 없었다는 점이다. 덕분에 상을 치르고 손님을 맞이하는 상주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고 정성을 다해 고인을 모실 수 있어 마음이 편했다. 유족들이 경황이 없을 때 노잣돈이나 고가의 고인용품 등을 강요하는 일은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종종 겪게 되는 큰 불만 중 하나. 그는 주변 친구들의 경우 여타 상조회사를 이용하면서 겪은 이런 적지 않은 문제들을 심심찮게 토로한다고 했다.

“유가족들의 슬픔을 틈타 염습할 때 노잣돈을 요구하거나 도우미들이 수고비를 요구하는 등 골치 아팠던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더군요. 하지만 다운플랜은 아예 처음부터 뒷돈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화 연락을 해달라는 경구까지 들어있어 신뢰가 갑니다. 상을 치르는 내내 불미스러운 일이 전혀 없었어요.”

다만, 상을 치르는 둘째 날은 가장 바쁘기 때문에 기본 두 명의 도우미 직원으로는 일손이 부족했던 점을 아쉬워했다. “둘째 날은 손님이 너무 몰려서 일손이 조금 딸렸습니다. 추가 요금을 더 내더라도 도우미 직원을 한 분 더 요청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차후 집안의 애사에는 꼭 다운플랜을 이용할 예정이라는 김유배 조합원은 “이모저모 따져 봐도 다운플랜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상조회사는 드문 것 같다”며 주변에도 적극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다운플랜이 더 좋은 품질과 서비스로 조합원들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투명하고 품격 높은 장례서비스를 약속합니다”

김유배 조합원의 장례서비스를 책임진 다운플랜 대구경북의전본부의 이승 의전팀장은 기존 장례서비스보다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스펙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KT노동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믿을 수 있는 브랜드라는 점에서 다운플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비용이 전부는 아니지만 상을 당한 고객입장에서는 금전적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는 장례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심’이라고 했다.

“염습은 단순히 몸을 닦고 수의를 입히고 대렴을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장례서비스는 머리와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다해 유가족에게 다가갈 때 그대로 전달됩니다.”

1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승 팀장은 유가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했다. 해서 혹여 가족들끼리 불화가 있는 집이라면 화합을 독려하는 등 가족처럼 망자에게도 유가족들에게도 더한 위로를 건넨다. 2년 전 KT대구수성지사 회원 장례식은 유독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는다. “KT에 몸담았던 남편이 돌아가시고 수성마케팅단에서 근무하던 부인마저 어린 자녀 셋을 남겨둔 채 암으로 돌아가셨죠.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아 장례비용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죠.”

서비스를 진행하다보면 어려움도 따른다. ‘빈소 안에서는 웃지 마라’, ‘맞질할 때는 손을 바닥에 짚어라.’ 등 한 시간여 장례예절을 미리 유가족들에게 설명해 주지만 경황이 없다면 잊어버리기 일쑤고, 상주는 상복을 빨리 달라고 보채는가 하면, 지역마다 장례관습이 다르고 특히 보수적인 성향의 어른들은 현대적인 장례절차에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아 설득에 애를 먹기도 한다. 하지만, 우직하게 장례절차를 진행하다보면 결국 큰일을 훌륭하게 치렀다는 공로가 상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승 팀장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하며 추진해 나간다.

그는 앞으로 다운플랜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최고의 장례서비스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반드시 임종하시자마자 바로 전화를 주셨으면 합니다. 가령 새벽 2시경 임종하셨는데 오전 6시에 전화를 하십니다. 빨리 안정시켜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장례식장 횡포도 심한데, 바로 출동해서 보다 좋은 장례식장 섭외도 해드릴 수 있고요. 다운플랜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출동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바로 전화주시요!”



다운플랜 대구경북의전본부 의전팀장 이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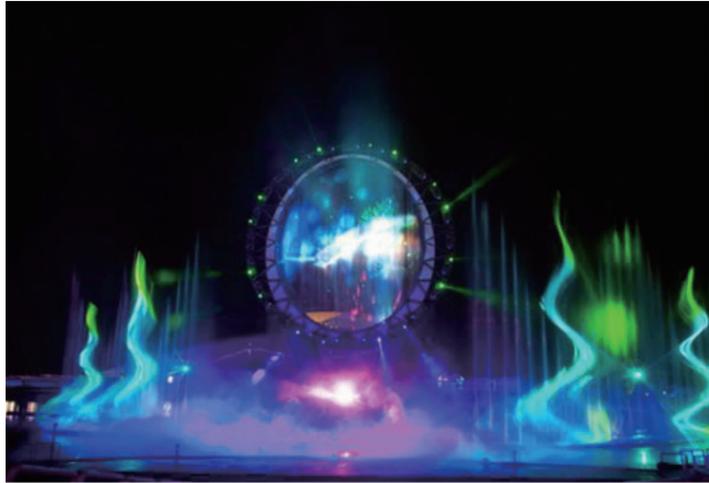
다운플랜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출동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바로 전화주시면 최고의 장례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가입문의 | 1577-1555  
www.daonplan.co.kr



# 뜨는 직업, 미래 직업 세계박람회에서 활약한 직업의 세계

세계박람회는 국제적인 규모와 체제를 갖춘 종합박람회다. 엑스포지션(EXPOSITION)의 앞 글자를 따 흔히 '엑스포(EXPO)'라고 한다. 올림픽과 월드컵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진 국제행사로, 문화·경제·기술의 발전 과정과 미래상을 선보이는 박람회다. 엑스포는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행사기간이 2~5배, 예산은 10배, 입장객 수는 20배 정도 많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93일 동안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했다. 인구 30만의 작은 도시 여수에서 열린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데 어떤 직업이 활약했는지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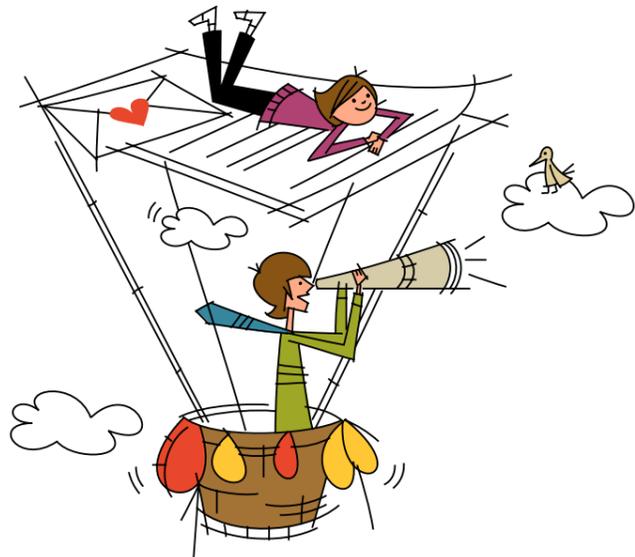
《여수세계박람회 '빅오(BIG-O)쇼'》 (사진 : 2012여수세계박람회)

### 빛의 마술사, 조명디자이너

2012여수세계박람회에서는 수면 위에서 펼쳐지는 '빅오(Big-O)쇼'가 단연 인기를 끌었다. 빅오쇼는 47m 높이로 설치된 디오(The-O)라는 원형 조형물과 옆으로 120m, 앞뒤로 10m 간격에 3열로 배치된 해상분수와 빔프로젝터 14대, 레이저 4대가 환상적으로 결합한 최첨단 특수 조명 쇼다.

조명디자이너는 건축계획에 맞춰 빛을 연출하기 위한 조명계획을 담당한다. 빛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조명기구의 위치, 효과 및 통제방법 등을 계획하고 구성한다. 행사의 성격이나 개최시간, 참석자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빛의 밝기, 색, 조명의 수 등을 결정하기도 한다.

조명디자이너가 되려면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디자인, 실내건축, 전기공학 등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내 일부대학의 학부과정과 대학원에 조명디자인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실내디자인이나 건축학과에서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조명설계회사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이론과 경험을 쌓는 것이다. 조명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국가 인증 자격증은 아직까지 없다. 한국전기조명설비학회에서 '조명디자이너 자격 인증서'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



KT trade union

20  
21

으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조명디자이너는 조명관련 회사, 인테리어 전문 업체, 건설사 인테리어 사업부, 백화점 매장 디자인 사업부, 모텔하우스 전문시공업체, 디스플레이 전문 업체, 고급 호텔 기획실, 이벤트 행사장 등에서 주로 활동한다. 조명과 관련된 분야가 많기 때문에 관련 분야로의 이전 직도 활발하다. 밤에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점차 늘고 야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조명디자이너의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 서비스의 꽃, 호텔 컨시어지

#### (Hotel Concierge)

각급 호텔들은 엑스포에 참여하는 전 세계 전시 관계자와 관람객들에게 최상의 고객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리셉션 데스크 외에 컨시어지 데스크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컨시어지(Concierge)는 '촛불관리자(le Comte des cierges)'라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했다. 최근에는 고객 서비스를 총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서비스의 꽃'으로 불리며 고객이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능해결사 역할을 수행한다. VIP 고객 에스코트부터 교통안내, 관광 및 쇼핑안내, 레스토랑 소개 및 예약 대행, 고객이 직접 구하기 어려운 티켓구매, 기념품 구매 대행까지 담당한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호텔에서 컨시어지가 활동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컨시어지는 고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습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요건은 외국어 능력이다. 호텔은 외국 고객이 많은 만큼 영어회화는 기본이며, 일본어 및 중국어 등 제2외국어가 가능하다면 유리하다. 호텔 컨시어지 부서에 입사하면 벨맨부터 시작해 점차 경력을 쌓게 된다. 대학에서 호텔관련학을 전공하거나 호텔 전문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시채용을 통해 입사하는 경우가 많다. 호텔에 실습을 나가거나 인턴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



컨시어지 골든키 (사진 : 47 Park Street – Grand Residences by Marriott)



컨시어지 골든키 (사진 : The St. Regis Singapore 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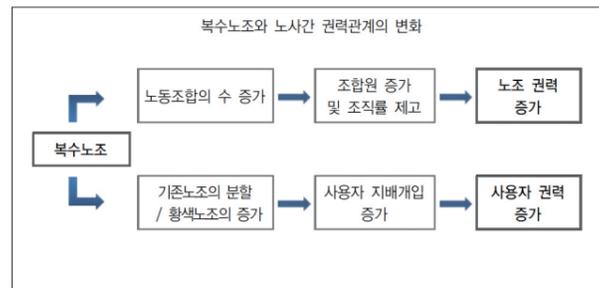
#### 세계컨시어지협회 레플레도르(Les Clefs d'Or) 멤버의 상징, "골든키"

10년 이상의 경력과 노하우, 고객 감동 사례, 소속 호텔의 총지배인이나 세계컨시어지협회 정회원의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국제컨시어지협회에서는 적극적인 활동, 국제적인 매너 등을 심사하여 골든키를 부여한다. 현재 국내에는 14명의 골든키 컨시어지가 활동하고 있다.



# 복수노조 시대 1년을 돌아보다

◎ 정부 “성공적 안착” vs 노동계 “노동권 후퇴”  
2011년 7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남짓 지났다.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업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설립 가능했으나 지난해 이후로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지고 복수노조 사업장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되었다. 정부는 이 같은 복수노조의 도입으로 단일노조가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노조활동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높아져 노조활동이 합리화되는 등 노사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사측의 반응 역시 긍정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현장에 복수노조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복수노조 도입 1년 후 노사관계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목소리는 다르다. 복수노조 제도가 기존 노조의 활동을 무력화하거나 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노동기본권이 후퇴되고 있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조직에서 만들어진 복수노조의 28.4%, 민주노총 산하에서 만들어진 복수노조의 70%가 사용자가 개입해 설립한 노조라는 것이다. 특히 쟁의사업장이나 공공기관, 운수사업장,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 복수노조 이후의 변화와 갈등  
기존 노조와 새 노조가 함께 있는 새로운 복수노조 체제는 노동 현장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최근 한진중공업의 경우 기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가 가졌던

교섭협상권을 새 노조에게 넘겨줬다. 올해 1월 복수노조로 출범한 새 노조는 친(親)사측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산 경남 지역 노동계의 한 축을 담당하던 한진중공업의 이 같은 변화는 지역 노동환경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같은 지역의 르노삼성자동차에서도 친사측 성향의 새 노조가 설립신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조합원들의 성향에 따른 새로운 노동환경의 변화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 친사측 성향의 노조가 입지를 강화하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행 1년이 지난 복수노조 제도는 현재 사업장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듯하다. 어느 정도 정착한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기존 노조와 새로 생긴 노조 사이에 우려되던 갈등이 발생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신청 등 복수노조 관련 사건은 44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사건(128건)의 3배 수준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3월에는 27건에 그쳤으나 6월 58건, 7월 128건으로 매달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복수노조 갈등으로 노동위를 찾은 사업장의 절반가량은 교섭단위 분리신청 사건이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업장의 교섭관행이나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노동위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지난해 21건 중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돼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지만 올해 건설플랜트와 청소용역 사업장에서 잇따라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올해 7월부터 기존 복수노조 사업장에도 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된다. 지난해 7월 복수노조 체제를 출범시킨 충남 아산의 자동차 부품업체 유성기업은 여전히 내부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성기업의 복수노조 체제가 사측의 노조 무력화에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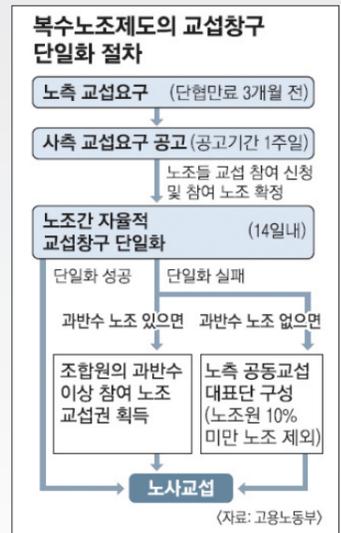
형태	사례
기존 비노조원들이 새 노조 설립	이화여대(청소·경비직)
기존 노조에서 조합원 탈퇴(아직 새 노조 설립은 안함)	연세대(청소·경비직)
기존 노조 탈퇴 조합원 중심 새 노조 설립	두산모트롤 등
복수노조 설립 후 교섭창구단일화 분쟁 발생	KEC, 삼화고속, 경진문수 등

자료: 민주노총 등

원했다는 논란 때문이다. 홍익대 경비노동자와 유성기업 노동자가 처한 상황은 유사하다. 홍익대 경비노동자들이 소속된 용역업체는 새로 만들어진 노조가 다수노조이기 때문에 집단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을 교섭대표 노조라며 기존의 노조를 배제한 채 시급 4900원의 저임금협상을 체결했다. 이 같은 현장 노동자들은, 사측의 지원을 받는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사측이 이들과 단일하게 임금 교섭을 함으로써 기존의 노동조합 활동이 탄압받음은 물론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파카한일유압 노동자, 발전노조 노동자 등 역시 고용형태와 하는 일은 다르지만 복수노조 설립 이후 겪은 일은 유사했다. 이들은 사측에서 노조원 개인에 대한 회유나 포섭을 하고, 가입한 노조에 따라 노동자를 다르게 대우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 ‘교섭창구 단일화’ 논란  
노동계는 복수노조의 제도적 문제점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조항을 우선 꼽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사업장 내 여러 노동조합이 생긴 경우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교섭질서의 혼란을 막고 노조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하지만 노동계의 입장은 다르다. 노동계는 사측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악용해 ‘어용노조’를 지원하고, 정부는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양대 노총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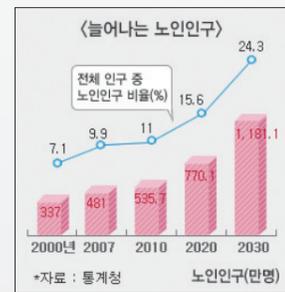
제하는 현행 복수노조 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소수노조의 노동 3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훼손하고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했다면 노조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만 인정하면서 생기는 독점의 폐해를 없애고 노동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시행된 복수노조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가장 대표적인 논란거리인 교섭창구 단일화 역시 사실상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소수 노조의 목소리가 묵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헌법상의 기본권인 노동 3권 중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사업장 단위 교섭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별노조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도 있다. 복수노조는 긍정적 측면에서 수적으로 노조의 성장이 가능토록 해 노조의 대외적 힘을 확대할 수 있고 노조의 민주성과 선택성을 높여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노조가 추진하는 정책노선을 보완하고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수 있다면, 복수노조는 사측을 일방적인 행동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장치이자 노사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은퇴 쇼크 ... 우리는 준비 됐나?

## ◎ 고령화 속도 세계 1위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이 1960년 52.4세에서 2008년에는 80.1세가 되었다. 이 추세라면 전문가들은 2040년에 이르러 평균수명이 90세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미 지난 2000년에 노인인구 비중이 7%를 웃돌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지난해에는 11.3%를 기록했다. 그 속도는 더욱 가팔라져 오는 2018년에는 고령사회(14.3%)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세기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우리나라가 또 다른 세계 기록을 세우는 셈이다.

2010년부터 우리 사회는 소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본격적인 은퇴를 맞이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시니어 세대와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학력 수준이 높고 오랜 기간 동안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활동해왔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인생 후반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 은퇴 문제는 개인 삶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인 문제 '2010 노무라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생활에서 식사나 취침 시간 등을 제외하고 하루 어림잡아 10시간을 자유시간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60~80세의 20년을 계산해 보면 평균 8만 시간 이상이 개인에게 남아 있다고 한다. 이 시간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전체 수업 시간의 세 배를 훨씬 넘으며, 직장인이 평균 20대부터 60세 정년까지 일하는 근무 시간에 맞먹는 시간이다.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 '긴 노후'를 보내야 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불안은 크기만 하다. 왜냐하면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들 중 '노후 안전지대'에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한 퇴직연금연구소가 수도권 내 직장인 7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은퇴준비현황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대부분인 74.3%가 노후생활에 대해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4.9%에 불과했다. 즉 은퇴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은퇴 준비를 할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우리 사회의 초고령화 추세가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최근 한 통계는 700만 명이 넘는 예비 은퇴자 중 40% 이상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은퇴쇼크는 한 개인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재정 지출이 늘면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고 노인 빈곤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은퇴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 은퇴 문제... 발등에 떨어진 불

대부분의 은퇴자들의 가장 큰 걱정이 바로 경제 문제다. 비단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아직은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길 원하는 은퇴자들이 많다. 그래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은퇴자를 비롯한 노인들의 일자리 대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에 국내 인구의 41%가 노인이 될 것이며, 50세 이상 노동력의 비율이 전체 노동인구의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단계에 있는 예비 은퇴자들이 사실은 '퇴장'이 아니라 '재진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생산가능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을 발생시켜 고령화로 인한 각종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는데다 사회가 이들의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



할 수 있는 기간도 늘이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고용시장에서 은퇴자들의 재취업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은퇴 전에 했던 일을 은퇴 이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분야 일자리는 지역문화재단이나 급식도우미, 서예강사 등의 지엽적이고 제한적인 일자리에 그치고 있다. 민간분야에서도 노인 일자리들은 경비업무나 지하철택배, 재활용품 처리, 주차관리 등 힘들고 기피하는 3D업종이 대부분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거의 없다. 또한 퇴직 후 자영업 등 창업을 했으나 결국 퇴직금을 다 잃고 폐업을 하는 은퇴자 역시 부지기수다. 최근 정부가 뒤늦게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실직에 대비한 노인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근본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리보다 고령화시대를 맞은 선진국에서는 여러 정책으로

은퇴 쇼크에 대비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05년부터 법정 퇴직연령을 67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으며 프랑스는 기존 60세였던 퇴직 연령을 순차적으로 4개월씩 늘려 2018년에 62세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연금수급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높였다. 영국은 2006년 고용평등연령법이 제정돼 65세 정년을 확립했으며 나이를 이유로 고용 차별 및 해고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이미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지난 2004년 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해 65세 정년을 의무화했고, 이를 더 연장하거나 정년의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 ◎ 은퇴의 의미에 대한 재정립

은퇴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온다. 현재 왕성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언젠가는 은퇴의 시기가 다가온다. 문제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은퇴를 맞는 시기는 점차 빨라지는 반면 평균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에 보내야 할 시간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은퇴의 사전적 의미는 '맡은 바 직책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서 한가로이 지내는 것'이다. 하지만 은퇴란 쓸모를 다하고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다. 은퇴야말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개인과 사회의 은퇴에 대한 새로운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은퇴문제를 회피하기 보다는 은퇴 이후에 펼쳐질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해 간다면, 새로운 인생 후반전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 “여자가? No! 여자라서 더 멋지네요!”

## KT영동지부 CS컨설팅팀 박선영 조합원

인터뷰 중에도 그녀의 핸드폰이 실 새 없이 울려댄다. 배터리를 세 개씩 교체하며 하루 수십 통씩 걸려오는 상담 전화를 접수하고 현장까지 오가야 하는 바쁜 그녀다. 그렇지만 왠지 오래 붙잡아두고 얘기를 나누고 싶다. 상냥하고 똑 부러지는 말투, 다부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일품인 박선영 조합원을 만나면 누구라도 그럴 것이다. 당찬 그녀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자주 좋아진다.



KT trade union

26  
27

### 현장개통부터 영업까지 소화하는 일

“네, 박선영입니다! 지금 쓰고 계신 일반전화를 인터넷 전화로요? 네, 가능해요. 서류 확인하고 전화 드릴게요~!” 인터넷전화 현장개통업무가 끝나고 지부로 막 복귀했다는 그녀가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상담 전화를 이어간다. 하루 30~40통은 족히 넘는 통화내역. 현장 설치 중에도 끊임없이 전화가 걸려올 때면 고객들에게 죄송할 때도 많다. 인센티브 체제인 업무의 성격상 사실 일 욕심은 내지 않을 수가 없다. 2010년 고객센터직 1기로 입사해 KT영동지부와 인연을 맺은 박선영 조합원(34)은 유무선 통신 상품 판매 및 개통, A/S등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개통과 영업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보니 여자로서 또 가정을 돌보는 엄마로서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아무래도 여자라서 현장일은 한정되어 있어요. 옥상에서 안테나를 다는 스카이라이프 일도 못하고, 전주를 못 올라가니까 FTTH(광인터넷)도 못하죠. 제가 입사할 때 1기 312명 가운데 여자는 6명이었어요. 2기도 302명 가운데 여자는 1명뿐이고 올해는 한명도 없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고객센터직이라고 해서 플라자 객장 업무라고 생각했어요. 면접 때 현장업무도 해야 한다고 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죠. 지금은 여자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일할 수 있는 건물로 팀원들이 배려를 해주는데, 남자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은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좋은 성과로 팀이 표창까지 받아 더없이 행복했고 급여를 많이 받을 때가 제일 좋다며 꾸밈없는 웃음을 환히 짓다가, 신입 때 허둥지둥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며 박 조합원은 금세 코끝이 빨개진다.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은 많고, 물어볼 사람도 없으니 진도도 안 나가고, 밤 10시, 11시 퇴근은 기본이었어요. 주말이 아니면 야기 얼굴 볼 시간도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현장 경험이 전혀 없었으니 처음 업무를 나갔을 때는 배운 대로 해도 안돼서 식은땀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설사 팀원들의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그 시간을 고객들과 잘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느긋한 여유가 생겼다.

### 여성이기 때문에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아

현장 개통은 적을 때는 한두 군데, 많을 때는 7~8군데로 매일 꾸준한 물량을 소화한다.



KT영동지부 CS컨설팅팀 박선영 조합원

박 조합원이 현장에 나가면 누구보다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고객들이다. 전화 후 고객의 집을 방문할 때면 ‘아까 통화한 직원이 맞느냐’고 물어보며 여직원의 방문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남성 고객들은 무거운 짐 옮길 때도 도와주고, 특히 여성 고객들은 같은 여성이기에 무척 편안해 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부딪히는 단점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연세 지긋한 고객들은 여자가 현장을 다니는 자체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며 다짜고짜 무시하거나 욕을 하기도 하고, 남성 고객들만 있는 사무실을 혼자 방문할 때면 짓궂은 성적 농담을 던지는 경우도 있다. 그때는 즉시 팀원들에게 SOS를 요청한다.

“기분은 나쁘지만 고객에게 표현은 못하죠. 팀원들에게 전화하면 가까이 있거나 업무가 끝난 팀원이 와서 도와줘요.” 하지만 그녀에게 현장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일터다. “외부에 나가면 여자라서 오히려 멋있다고 말해주고, 도움도 주시고, 편안해 하시니까 좋아요. 장점이 더 많죠.”

KT입사 전 KTF고객센터에서 9년8개월간 일했던 박선영 조합원은 업무 전산 등 휴대폰 관련 업무에서는 누구보다

“그녀에게 현장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일터다. ‘외부에 나가면 여자라서 오히려 멋있다고 말해주고, 도움도 주시고, 편안해 하시니까 좋아요. 장점이 더 많죠.’”



자신감이 있다. 비록 새롭고 힘든 현장 일로 힘들었지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는 것은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됐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녀만의 유능한 컨설팅 능력은 지속적인 모바일 판매로 이어져 좋은 실적까지 고스란히 연결됐다.

무엇보다 그녀에게 영동지부는 절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지 않은 평생의 발령 희망지다.

“저는 다른 데 지원해서 가라고 해도 가지 않을 겁니다. 팀 단합도 너무 잘되고 동료들도 너무 좋아요. 저희 직군의 경우는 다 같이 일을 해도 급여가 달라요. 배려 없이 욕심을 부리자면 개인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팀장님 이하 10명 모두 서로 윈윈하고 있죠.”

**비효율적인 유니폼, 개선이 되었으면**

고객서비스직이 정착되어 가는 시점에서 그녀는 평소 생각들도 여러 가지 털어냈다.

“지사지표를 줄 때 고객서비스직군이 많으면 100으로 주지말고 70으로 준다던가 하는 식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제는 지부의 생산성 지표를 채울 때 저희는 기존에 업무를 하시던 분들과 생산성 지표가 동일하게 들어가요. 저희는 만일 개통을 하다가 큰 영업이 있거나 이슈가 돼서 무언가 일을 해야 되면 현장 업무를 접어두고 영업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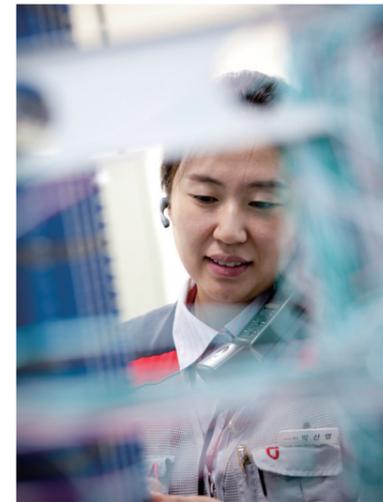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해요. 그래야 업무 충실도도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현장업무를 전혀 안하면 개통점수야 자신이 그냥 안고간다해도 지사지표는 낮아지죠. 저희도 소속된 조합원 입장에서 지부에 폐를 끼치면서 욕심을 차릴 수는 없잖아요. 서로 윈윈하는게 좋죠.”

또 한 가지, 그녀는 무엇보다 유니폼에 대해 꼭 말하고 싶다고 했다.

“올해 유니폼은 너무 불편해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신축성이 전혀 없어요.” 티셔츠와 스판 바지였던 제작년에 비해 올해는 남방이다 보니 특히 현장업무에는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란다. 지부의 조합원들 대부분이 올해 유니폼 바지를 거의 입지 않는다고 했다.

“작년과 올해 유니폼 바지는 뜯지도 않고 집에 그대로 있어요. 신축성 있는 바지가 아니라 정장바지라서 여자 조합원 한 분은 올해 유니폼을 입고 현장에 나갔다가 바지가 터져 창피를 당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남자들은 차라리 허리 사이즈를 두 사이즈 정도 크게 주문해서 입기도 해요. 근데 맵시가 안 나서 정말 보기 싫죠. 바지는 신축성이 없을 뿐더러 여자들 경우는 비치지 말라고 안감까지 덧대서 땀이라도 나면 달라붙어서 도저히 못 입을 정도예요. 남방도 마찬가지예요. 신축성이 없으니 팔을 뻗칠 수가 없어요. 저도 한사이즈 크게 주문했더니 동료들이 엄마 옷 입



고 나왔냐고 놀리기까지 하네요. 그나마 신축성 있는 제작년 바지로 2년을 버텼는데 내년에는 낡아서 도저히 못 입을 것 같아요.”

움직임과 이동이 많은 업무의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유니폼이어서, 일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한다. 박 조합원은 유니폼 문제가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현장 조합원에게 현실적인 문제라며 반드시 개선을 부탁했다.

오전 8시 10분까지 출근하면 정시 퇴근은 꿈도 못 꿀만큼 박조합원의 시간적 여유는 없다. 현장 마무리 후, 오후 6시부터 사무실에서 시작되는 문의확인, 상담, 신청처리, 서류이미징 등의 처리해야 할 업무는 오후 8시가 훌쩍 넘어야 끝나기 일쑤다.

처음에는 ‘일이 익숙해지면 시간도 단축 되겠지’ 했지만, 일이 많다보니 도무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

그래서 그녀는 힘든 업무의 활력소가 될 프로모션을 만들어 여행도 가고 수당 인센티브도 마련된다면 좀 더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던진다. 단지 개인의 휴식이 아니라 급여체계를 고려한 프로모션을 실시해 부족한 실적의 조합원들도 의기충전 한다는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다. 지부와 함께, 동료와 함께하고자 하는 박 조합원의 바람들이 하나씩 이루어진다면 고객들이 그녀의 명품 미소를 볼 날도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 내 월급봉투 속의 행복 연봉 액수와 행복 지수의 상관관계

매월 손꼽아 기다리는 월급날. 하지만 입금된 급여는 카드 값,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등으로 소리 없이 빠져나가고 통장에는 들쭉날쭉 숫자들의 흔적뿐이다. 월급, 과연 얼마나 받아야 행복할까? 행복한 연봉은 얼마일까? 연봉 액수와 행복의 크기는 비례할까? 모두가 궁금한 월급의 모든 것, 애플 CEO 팀 쿡에서부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의 월급봉투까지 살살이 파헤쳐왔다.



■ 매출 100대 기업 중 급여를 공개한 88개 기업 연봉 순위

순위	기업	직원평균연봉(만원)			평균근속연수(년)
		전체	남성	여성	
1	하나대투증권	1,1500	1,4400	6200	7.7
2	코리안리저브보험	9000	9800	7000	8.6
3	현대자동차	8900	9000	7100	17.6
4	여천NOC	8700	8802	4000	19.5
5	기아자동차	8400	8600	6400	17.2
6	현대모비스	8300	8060	5735	12.4
7	삼성생명보험	8200	1,3000	6100	11.7
8	삼성엔지니어링	8200	8400	5520	4.8
9	우리투자증권	8013	9663	5679	9.1
10	현대중공업	7830	7982	5211	18.2

출처: 잡코리아

## 대한민국 직장인의 월급봉투 들여다보기

국내 매출 100대 기업 가운데 직원 연봉을 공시한 88개 업체를 잡코리아가 분석한 자료를 보자. '1억 4400만원'. 하나대투증권에 다니는 남성 직원의 평균 연봉이다. 대한민국 상위 1%의 기준이 1억 488만원이다. 하나대투증권에 다니는 남성의 대부분은 상위 1% 기준보다 37%를 더 받는다. 하나대투증권의 여성 직원 평균은 6200만원이다. 전체 평균은 1억 1500만원으로 비교 회사 가운데 가장 높은 연봉을 차지했다. 금융업계의 평균 연봉은 6800만원이다. 그 다음이 제조업으로 6585만원, 건설업 6424만원 순이다. 자료에 따르면,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회사 가운데 6곳이 보험, 증권, 은행 같은 금융업체다. 금융업체가 유독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는 뭘까? 금융회사 연봉은 주가의 등락에 따라

KT trade union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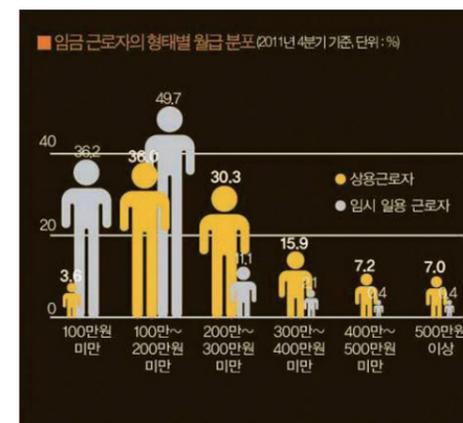
31

지급되는 성과급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연봉에 거품이 있다는 말이다.

'꿈의 직장' 삼성전자는 남성 8860만원, 여성 5350만원으로 전체 평균 7765만원이다. 순위로는 12위에 그쳤다. 삼성전자는 매출 165조원에 영업이익 16조 2500억 원의 국내 최대 기업이다. 임원들의 '1인당 생산력'을 비교할 수 있는 '임원보수율'이 있다. 임원보수율은 매출액에서 등기임원 1명에게 지급한 보수 비율을 말한다. 국내 1천대 기업 평균 임원보수율은 0.14110%이다. 매출 10조원 이상 기업 평균은 0.01877%다. 삼성전자의 임원보수율은 0.00902%다.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높다는 뜻이다. 동시에 임원과 직원이 발휘하는 '생산력'에 비해 급여가 낮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쟁력이 높은 회사라고 해서 연봉이 높지는 않다는 결론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을 가장 많이 낸 회사는 어디일까? 호남석유화학이다. 직원 1인당 6억 4300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호남석유화학의 직원 평균 연봉은 7300만원으로 18위다. 여성 직원 평균은 3587만원이다. 88개 업체 가운데 81위를 차지한 STX팬오션의 여성 평균 연봉은 3554만원이다. 돈 되는 회사에 다니면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공식도 성립되지 않는다.

연봉이 높은 회사에 다니면 행복할까? 한해 5억에서 10억을 번다는 스타 애널리스트들은 40대 초반이면 은퇴를 준비한다고 한다.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이다. 연봉이 높다고 직장에 오래 다니는 것도 아니다. 1억 1500만원의 평균 연봉을 받는다는 하나대투증권의 평균 근속연수는 7.7년에 불과하다. 83위인 신세계의 평균 연봉은 4300만원인데, 근속연수는 7.6년이다. 근무 기간만 놓고 보면 어느 곳이 행복한 직장인지 알 수 없다. 연봉 이상의 다양하고 복잡한 조건이 작용 한다고 볼 수 있다.

## 일하지만 가난에 허덕이는 '워킹 푸어'



임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은 200만원 미만을 받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1731만 명 가운데 940만 명이 한 달에 200만원을 벌지 못한다. 54.3%에 이른다. 세금이나 4대 보험료, 거기에 은행

든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최빈곤층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결국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다. 많은 여성들이 육아를 포기하더라도 직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여성 임금노동자의 76.7%는 한 달에 200만원을 벌지 못한다. 열 명 가운데 여덟 명이다.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여성의 대부분이 빈곤의 경계에 서있다.

■ 2010년 빈곤층 규모 (빈곤인구 또는 전체가구 대비)

구분	인구수(%)	가구수(%)
총계	340만 명 (7.0)	190만 가구 (10.8)
① 기초수급자	156만 명 (3.2)	88만 가구 (5.0)
② 비수급빈곤층	186만 명 (3.8)	102만 가구 (5.8)
③ 최저생계비 100~120%	68만 명 (1.4)	36만 가구 (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 빈곤실태조사, '11.12

■ 참고: 상대적 빈곤율\* (단위: %)(가계소득 전체가구 기준)

	'08년	'07년	'08년	'09년	'10년
	14.3	14.8	15.2	15.3	14.9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의 비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2.1)

## 월급봉투에는 행복이 있을까?

경제 대국 미국에서 최고 연봉을 받는 임원은 애플 CEO 팀 쿡이다. 3억 7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42,260,000,000원이다. 200만 원 월급쟁이의 221,130개월 치 급여에 해당한다. 18,427년 일하고, 반년을 더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한국에서 한 달에 오백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7%에 불과하다. 93%의 직장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빈곤이거나 빈곤선에서 맴돈다. 다시 자신의 월급봉투를 찬찬히 들여다보자. 그 속에는 과연 얼마짜리 행복이 들어 있나?

#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 짧지만 알찬 금·토·일 여행 주말 해외여행을 위한 '꼼꼼 친절' 가이드

직장인에게 여행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멀리 해외로 떠나기란 여러모로 제약이 많다. 여름휴가 때 떠나자니 성수기 북새통이 얽혀되고, 짧은 여름휴가를 해외에서 모조리 다 보내자니 어쩐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고민들을 한번에 해결해 줄 베스트 플랜을 소개한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즐기는 상하이 여행!  
여름휴가 성수기를 피해 10월 경 늦은 휴가를 계획 중이라면, 상하이를 추천한다.  
중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가 가득한 상하이 구석구석을 소개한다.

### 상하이 1일차 | 금요일

#### 푸동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한 눈에!

#### 푸동의 중심에 자리 잡은 백화점 [정대광장]



엄청난 규모의 식당가로 유명한 태국자본의 백화점이다. 동방명주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식사를 하고 관광을 시작하기 안성맞춤이다. KFC, 버거킹,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부터 사우스 뷰티, 딘타이핑, 샤오난귀 등의 중국 음식과 일본·서양음식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가벼운 후식이나 커피를 즐기려면 스타벅스, 커피빈, 하겐다즈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 상하이 대표 랜드마크 [동방명주]



상하이의 상징과도 같은 동방명주는 높이 약 470m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송신탑이다. 순수한 중국 자본과 기술로, 푸동 개발계획이 발표된 지 3년 만인 1992년에 완공되었다. 대형탑의 야간 조명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해 낮보다 밤이 더 멋지다. 전망대에서 보는 푸동의 야경 또한 놓칠 수 없는 포인트.

#### 아시아 최대 아쿠아리움 [상하이해양수족관]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수족관으로 총 28개의 대형 테마전시관으로 구성돼 있다. 수족관에는 총 길이 168미터에 이르는 4개의 해저터널이 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80도, 280도로 둘러싸인 수족관을 통과하며 다양한 해양생물을 관람할 수 있다.

#### 중국 최고층 빌딩 [상하이힐스]



마치 거대한 병마개가 우뚝 서 있는 듯 독특한 외관의 상하이세계금융센터(SWFC)는 높이 492m로 중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다. 100층의 전망대에서는 동방명주와 금무대하를 발아래에 두고 감상할 수 있다.

#### 백만 불짜리 야경 [와이탄], [예원], [빈장다다오]



푸동의 멋진 야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와이탄], 푸동의 야경 아래 와이탄을 감상할 수 있는 [빈장다다오], 밤이 되면 더욱 아름다워지는 [예원]. 세 군데 환상적인 야경 스팟 중 원하는 곳을 골라보자!

### 상하이 2일차 | 토요일

#### 골목 구석구석, 반짝이는 숨은 매력 찾기

#### 창러루, 신러루, 쥐루루 Street Life



동서양 문화가 결합된 오묘한 분위기로 상하이 젊은이들의 쇼핑과 외식으로 유명한 거리다. 대부분의 상점이 오전 11시에 문을 연다. 느긋하게 둘러보며 마음에 드는 레스토랑을 점찍어 두고 시간에 맞춰 여유롭게 점심 식사를 즐기기 좋다.

#### 상하이 속 작은 유럽 [신천지]



석고문(상하이전통주택)양식의 건축물과 유럽식 노천카페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들이 뒤섞여 여기가 유럽이 아닐까라는 착각이 들 정도다. 낭만적인 유럽 분위기를 즐긴 후 근처에 있는 태평교의 녹지에서 조용한 휴식을 가져보는 것도 추천한다.

#### 저녁은 난징시루 쪽에 있는 [우장루미식가]



중국은 음식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음식 문화가 풍부하다. 온갖 종류의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을 시식해 보자. 마라탕, 성젠, 꼬치구이, 차우더 우푸등 중국 서민들이 즐기는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 쇼핑 후엔 상하이 럭셔리 BAR [CLOUD 9 클라우드 나인]



상하이의 황홀한 불빛 속에 취하고 싶다면 단연, 클라우드 나인이다. 그랜드 하얏트(진마오파사)의 87층에 위치해 있다.

### 상하이 3일차 | 일요일

#### 집을 호텔에 맡기고 상하이 마지막 코스 둘러보기

#### 시내 중심에 위치한 중국 전통 정원 [예원]



대표적인 관광명소이자 상하이 내 유일한 정원이다. 1559년 명나라의 관리가 아버지를 위해 축조한 것인데, 100여 년의 혼란기를 거치며 훼손된 것을 중국 정부가 복원해 1961년 9월 30일 국경절을 앞두고 다시 문을 열었다. 재미있는 이야기 다리 '구곡교(九曲橋)'와 현존하는 인공산 중 가장 오래된 '대가산(大假山)', 사자성어 '점입가경'의 유래가 된 '점입가경(浙入佳境)' 등이 볼 만하다. 항상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기 때문에 이른 아침 서둘러 출발하자.

#### 상하이 제일의 변화가 [남경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보행자 전용도로다. 각종 쇼핑몰과 백화점, 호텔, 상설 공연장들이 늘어서 있어 구경하는 즐거움이 있다. 쇼핑을 즐기기에 좋다.

#### 상하이에서 가장 큰 박물관 [상하이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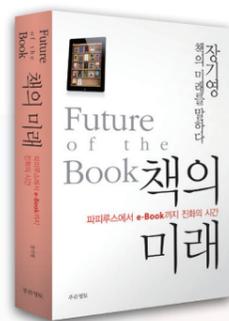


상하이박물관은 중국 4대 박물관 중 하나다. 중국의 유구한 역사를 알아보고 싶다면 꼭 방문해 보자. 고대 청동기 문화관, 고대 도자기관, 서예관 및 그림, 도장, 옥기관, 화폐관, 명·청시대의 가구관, 소수민족의 공예품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료입장이므로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다. 단, 오후 4시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능하다.



# 책의 미래를 말하다! 전자책의 모든 것

〈책의 미래〉 장기영



최근 KT는 미래 성장 분야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그룹으로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변화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디어 콘텐츠 부분 중 하나인 전자책(e-book)의 모든 것을 담은 장기영 작가의 '책의 미래'를 살펴보자.

장기영 한국전자출판협회 사무국장이 쓴 '책의 미래'는 저자가 지난 10년간 경험한 전자출판산업의 역사와 고찰을 담았다.

지난 10년간의 전자책 산업에 대한 기록이자 고찰이자 책이라는 미디어에 대한 사색과 사유를 혁신, 협력과 협업, 그리고 글로벌을 키워드로 풀어간다. 종이책 기반의 콘텐츠 창조자와 테크놀로지의 혁신자들과 전자책 기반의 콘텐츠 창조자와 테크놀로지의 혁신자들은 이제 자리바꿈을 해나가고 있다. 과거의 잔재와 미래의 징후들이 현재라는 시공간에서 격렬한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콘텐츠 기획이나 생산 능력만 있다면 자본 없이 언제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신세계가 바로 전자책이다라고 설명한다. 이 책

은 책을 지독하게 사랑하지만 출판산업 양극화의 벼랑 끝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중소 출판사와 5만여 개의 무실적 출판사, 그리고 종이책 시스템에서 소외되어 왔던 새로운 전자책 세상에서 디지털 셀프 출판의 꿈을 키워가는 저자와 작가들을 전자책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

### 저자소개

저자 장기영은 2000년 한국E-BOOK산업협회의 결성을 주도하고, 2006년 한국E-BOOK산업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 통합과 함께 사무국장을 맡는 등 지난 10여 년간 전자책 관련 일을 해왔다. 현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문위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문서언어(SC34) 분야 표준개발위원회 위원,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 위원, 국립국어원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 멀티미디어 자료구축평가위원, 한국전자출판학회 이사, 그린북아시아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EBS, KBS, 팬택, 대교출판, 한국번역가협회, 일산직업능력개발원, 디지예코, 벤처스퀘어, 산업교육연구소 등에서 컨설팅과 강연 활동을 해왔다.

## KTTU QUIZ

“통신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통신 3사(KT · SKT · LG유플러스) 노동조합이 지난 9월 11일 KT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결성한 협의회 공식 명칭은?”

정답 보내주실 곳 : kgb@kt.com(김근배 홍보국장)

### ANSWER

정답과 함께 소식지 '길'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보내주실 때 반드시 이름/소속/연락처/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상품권이 배송됩니다.

### 지난호 당첨자

홍성찬(홍성사업지원센터 충남고객본부), 민병혁(대구네트워크운용단 집중운용센터 품질개선팀), 성현주(대구네트워크운용단 집중운용센터 품질개선팀), 김유식(충남본부 용전지사 동대전특별기동팀), 김윤호(대구고객본부 구미지사 SOHO고객팀), 서윤수(충남고객본부 둔산지사 고객지원팀), 김경주(SMB고객본부 기업RC센터), 이태희(충청고객센터 기업as상담팀), 김진권(의정부지사 소호고객팀), 형상우(전남고객본부 사외채널담당)

(주)다운플랜의 경조 서비스

# 한번뿐인 웨딩, 준비된 다운플랜

(주)다운플랜에서는 다운플랜의 구좌로 장례 서비스 뿐만 아니라 웨딩 서비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하였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신청

1577-1555  
www.daonplan.com

### 상품 소개

품목	세부사항
신랑 의상	턱시도, 연미복 또는 모닝코드(해당 삼의 최고급 신상품 사용)
신부 의상	신상 드레스(해당 삼의 최고급 신상품 사용)
헤어 메이크업	신랑, 신부 제공
부케	부케 1, 부토니아 1, 코사지 6
본식 사진	신랑신부용 원판 스냅 합본 30p 1권
이벤트 예식 진행	담당 플래너와 상담을 통한 맞춤 예식 지원
웨딩플랜 제공	담당웨딩플래너와 1:1 웨딩컨설팅 제공
예식 장소	지정웨딩홀 및 호텔(상담후 결정)
신랑 의상	턱시도
신부 의상	드레스 2벌, 파티복 1벌
별도 의상	한복, 캐주얼 등의 의상은 개별 준비
헤어 메이크업	신랑, 신부 제공
앨범	11X14 = 20p
액자	20R
서비스 품목	웨딩카 장식 지원, 비품(성혼선언문, 혼인서약서, 방명록 2권, 장갑 7족, 봉투, 펜)
웨딩카	벤츠, BMW, 제네시스, 에쿠스 등 기사 포함/미포함 등 회원 선택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다운플랜 홈페이지(http://daonplan.com)에서 참고해주세요.

현재 회원 가입 중인 다운1호(300만원) 상품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